가계의 소비지출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Household Expenditure Patterns and Its Characteristics

유타주립대학교
객원교수 주 인 숙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전임강사 양 세 정

Utah State University, Department of Human Environments
Visiting Professor : Insook Ju
Sangmyung University, Dept of Home Management
Full-time lecturer : Se-Jeong Yang

〈목 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의 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및 해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household expenditure patterns using the 1990 Korean Consumer Expenditure Survey and identified the factors determining a household's probability to be in an expenditure pattern. The results of cluster analysis revealed five expenditure patterns: Education and Recreation-dominated; Necessities-dominated; Miscellaneous expenditure-dominated, Housing dominated; and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dominated patterns. Based on the results of descriptive and Logit analyses, household income, household size, age of household head, and housing status were major factors to determine the type of household expenditure pattern.

Ⅰ. 서 론

전통적인 경제학적 소비자수요결정모델에서 가계 소비지출은 가계의 소득과 가계선호에 의해 결정된다(Bryant, 1990). 여기서 가계선호는 개별가계가 지니고 있는 욕구를 반영하는 개념으로, 같은 수준의 소득을 가진 가계라 할지라도 가계욕구의 형태에 따라 가계의 소비지출선택은 다른 유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특정한 가계의 욕구는 특정한 소비 상품군의 선택을 이끌어 낸다.

이와 같이 가계소비지출의 행태는 가계의 소비욕구를 반영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가계의 소비행태 및 복지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동안 많은 학자들의 연구 주제가 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가계소비지출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개별 가계의 소비지출규모를 다루는 연구들이었으며(문숙재와 정순희, 1995; 양세정, 1993; 이성민, 1992; 최은숙, 1990 등), 일부가 가계소비지출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지출비목들의 구성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수행하여 왔다(김기옥과 이승신, 1990).

가계욕구가 달라짐에 따라 가계가 선택하게 되는 소비 상품군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은 가계가 주어진 소득을 소비지출비목들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 배분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공통된 소비패턴의 동질성으로 특징 지워지는 것을 근거로 소비유형을 분류하려는 연구들이 몇몇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이 부분에 관심을 둔 국내 연구는 매우 소수이다. 손상희의 연구(1993)는 미국의 가계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국내 자료를 사용한 유일한 연구로 정영숙의 연구(1992)가 있으나 대구·경북지역의 400여 가구를 연구 대상으로 함으로써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현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더불어 가구특성 변수를 제한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소비지출유형별 특성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국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소비지출을 그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 도출된 각각의 가계소비지출유형이 어떠한 변인들에 의해 어떤 식의 연관성을 지니는지를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중심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가계소비지출의 유형에 대한 분석은 개별 가계의 다양한 소비욕구를 파악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특정 집단의 경제적 필요 및 소비수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가계복지관련 정책담당자에 있어 이러한 정보는 가계의 특정상황에 부응하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가계관리교육자에 있어서는 소비지출유형별로 가계의 필요를 이해하고 이를 예측하며 보다 효율적인 가계재무설계전략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가계소비지출유형을 분석하는 것에 주목적을 둔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여기에서는 이들 연구를 대상으로 고찰하되 연구방법과 도출된 가계소비유형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Uusitalo(1980)와 손상희(1993)의 연구는 소비패턴을 생활양식의 한 영역으로 보았으며, '소비패턴의 차원'을 소비항목들간의 관계를 기초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Uusitalo는 핀란드 가계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220개의 가계소비지출항목과 20개의 시간사용변수를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함으로써 소비패턴의 차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보다 큰 분산설명도를 얻기 위하여 변수들을 가려내었고, 최종 요인분석에서는 20개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3가지 소비패턴차원의 특성을 바탕으로 각각에 대하여 현대성(modernity), 이동성(mobility), 다양성(variosity)이라 명명하였다. 이들 세 차원에 대해 저현대성과 고현대성, 저이동성과 고이동성, 저다양성과 고다양성등으로 분류함으로써 각기 8가지 유형의 소비유형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들 소비유형집단의 특성을 논의한 바 있다.

손상희(1993)는 1987년 미국 노동통계국에 의해 수집된 가계소비지출조사자료(Consumer Expenditure Survey)를 사용하여 소비패턴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소비패턴차원의 분석을 위하여 큰 집기, 작은 부엌용품, 항공료등을 포함하는 31개의 세부소비지출항목변수를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Uusitalo연구에서와 같은 이유에 의해 최종요인분석에서는 12개의 변수가 사용되었다. 결과적으로 3개의 소비패턴차원이 규명되었는데, 개인교통/주거차원, 사회적 소비/주거차원, 건강 및 가내필수재/개인교통차원으로 명명하였다. Uusitalo가 각 소비패턴차원에 대해 임의적으로 절반씩을 나누어 저차원과 고차원으로 분할한데 반해, 손상희의 연구는 요인분석의 각 차

원에서 가계가 가지는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 동질의 요인점수를 지니는 5개의 소비패턴유형이 규명되었다. 주거지배적 소비유형, 온건균형적 소비유형(전체 가구의 39.9%), 개인교통지배적 소비유형, 건강 및 가내필수재 강조 소비유형, 사회적 강조 소비유형(오락문화활동지출비율 3.9%, 외식 8.8%)으로 명명하였고, 이들 각 소비유형의 특징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였다.

가계의 소비지출구성형태에 근거하여 가계소비지출유형을 도출한 연구들이 정영숙(1990; 1992)과 Fan과 Stafford(1994)에 의해 수행되었다. 정영숙(1990)은 그의 박사학위논문에서 노인과 젊은 소비자의 소비지출패턴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가계의 소비지출패턴을 분류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Uusitalo (1980)나 손상희(1993)의 소비패턴차원규명의 단계를 통하지 않고 바로 17개의 소비지출비목의 구성비를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하였다. 1986년 미국의 가계소비지출조사(Consumer Expenditure Survey)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내(家內)재중심 패턴, 주거비지배적 패턴, 서비스사용패턴, 개인교통지배적 패턴의 네 가지 패턴을 도출하였다. 정영숙은 또한 로짓분석을 사용하여 가구가 각 유형에 속할 확률에 미치는 관련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공하였다. 소비지출패턴분류는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구주의 연령, 총소비지출(가계소득의 대용변수)은 全소비지출패턴에 대해 각 패턴에 속할 확률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으며, 가구주의 대졸여부, 가구원 수, 주부취업여부등은 두 가지 이상의 소비패턴에서 유의한 관련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Fan과 Stafford(1994)는 1980년에서 1990년까지 11년 동안의 미국 가계소비지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소비지출유형을 분류하였다. 그들은 손상희(1991; 1993)의 연구[1]가 소비지출차원을 규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일차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다수의 세부지출비목을 분석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보손실이 많았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손상희(1993)와 정영숙(1990)의 연구에서는 각 유형에 속할 확률에 대해 개별적 로짓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각 유형에 속할 확률에 대한 한계효과를 도출할 수 없었다는 공통된 한계점이 발견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연구는 정영숙의 방법을 채택하여 주요지출비목(13개 비목)의 구성비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하여 6개의 군집을 규명하되, 유형에 속할 확률과의 관련변인을 분석함에 있어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도출된 군집들은 지출구성비의 특성에 따라 식품 및 관리비지배적 유형, 주거비지배적 유형, 보건의료비지배적 유형, 교통비지배적 유형, 교육비지배적 유형, 쾌락지배적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가구의 사회경제적 변인의 소비지출유형에 속할 확률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인종, 총소비지출, 연령, 편모가구여부, 교육수준, 가구주 나이, 주부의 취업여부, 취업자 수, 가구주 연령대별 인원 수, 주거지역, 도시화정도, 조사연도등 연구에 포함된 대부분의 변수들이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숙(1992)의 연구는 대구·경북지역 가계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 자료상의 한계가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가계소비지출패턴을 규명한 최초의 분석이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11개의 가계소비지출비목의 구성비를 이용하여 이들의 동질성에 토대를 둔 군집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4개의 군집을 규명하였다. 이들은 각기 지출구성비의 특성에 근거하여 식료품비-지배적 패턴, 피복비-지배적 패턴, 주거비-지배적 패턴, 교육비-지배적 패턴으로 명명하였다. 각 소비지출패턴에 속할 확률과 가계의 사회경제적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로짓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식료품비-지배적 패턴은 모든 변인들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복비-지배적 패턴의 경우 젊을수록 또는 전업주부가구인

1) 손상희는 소비유형에 관한 연구를 박사학위논문(1991; 참고문헌 참조)으로 수행하였으며, 이를 요약하여 국내학술지(소비자학연구, 1993)에 게재한 바 있다. 따라서 Fan과 Stafford는 학위논문을 참조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문헌고찰은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요약본에 의거하였다.

경우가 이 패턴에 속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젊은 주부의 가구이거나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상대적으로 주거비-지배적 패턴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가계소득수준이 높고 주부의 교육수준이 낮으며 전업주부가구의 경우 교육비-지배적 패턴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자료

본 연구의 실증분석 자료로 1990년 도시가계연보의 기초자료를 사용하였다. 통계청에서 매년 수집하는 도시가계연보 자료는 1963년이래 전국의 전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가구를 층화 및 확률비례 추출하여 소득과 비목별 소비지출에 대해 조사, 수집하고 있다. 조사방법에 있어서 비목별 지출은 가계부 기장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가계소득, 가구원수, 주거상태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면접조사에 의하였다. 매월 전국 도시의 4,000여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1년간 지속적으로 조사된 가구만을 추출하여 각 가구의 월평균소비지출을 계산하여 사용하였고, 가계소득을 포함한 가구의 특성에 관한 자료는 12월의 조사기록을 채택하였다. 조사대상 중 가계소득관련자료가 부실한 비근로자가구를 제외함[2]으로써 최종적으로 1,249근로자가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자료의 분석

1) 군집분석

본 연구는 가계소비지출을 그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자 하는 바 이를 위해 각 지출비목별 구성비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Fan과 Stafford(1994)가 지적하였듯이 요인분석에 의한 소비지출차원의 규명과정을 통한 군집분석의 적용은 도리어 가계지출특성에 대한 정보를 손실한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군집분석은 가구의 지출비목간의 구성형태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집단 내의 동질성 및 집단간의 차이를 최대로 함으로써 가구들을 몇 개의 집단으로 묶어내는 다변량기법이다. 특성들간의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클리드의 거리자승법(Squared Euclidean distance)을 사용하였고, 동질적인 가구들을 군집화하는 방법으로 평균기준결합방식(average linkage)을 사용하였다.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군집의 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Pseudo F-값과 덴드로그램을 참고하였다.

군집분석에 사용된 특성변수는 통계청의 소비지출비목 분류방법인 9개 가계소비지출항목인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보건의료, 교육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지출액의 총소비지출액에 대한 구성비를 사용하였으며, 각 지출항목의 구체적 정의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로짓분석

한편 각 소비지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서는 다항로짓분석을 이용하여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의 각 소비지출유형에 대한 한계효과를 분석하기도 하였다(Fan과 Stafford, 1994). 그러나 본 연구의 관심은 각각의 가계소비지출유형이 어떠한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각 가구의 소비행태와 관련된 효율적인 가계관리에 대한 제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각 유형별 로짓분석이 이에 보다 적합한 방법이라 판단하였다. 로짓분석은 특정 가계소비지출유형의 소속여부의 경우처럼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인 경우 일반적 회귀분석에 비해 신뢰도가 높다. 또한 본 연구의 경우에서처럼 일부 독립변수가 가변수인 경우 로짓분석이 판별분석에 비해 통계적 신뢰도가 높

2) 통계청에서는 비근로자가구 역시 가계소득을 조사하나 그 결과를 분석자료로 사용하기에는 신뢰성에 한계가 많아 통계청에서 행해지는 자료분석에서도 이들에 대한 소득자료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소비지출비목의 구체적 정의

지 출 비 목	구 체 적 정 의
식 료 품	곡류, 육류, 유란, 어패류, 채소 및 해초, 과실, 음료, 주류, 유지 및 조미료, 빵 및 과자류, 외식, 식료품관련서비스
주 거	월세, 주택설비수리, 아파트관리비, 기타주거
광열·수도	수도료, 전기료, 연료
가구집기·가사용품	일반가구, 가정용가구, 식기주방용품, 가사잡화 및 소모품, 침구
피복 및 신발	외의, 스웨터 및 샤스, 내의, 직물 및 실, 기타피복, 신발, 피복 및 신발서비스
보 건 의 료	의약품, 보건의료용품기구, 보건의료서비스
교육교양오락	교육, 문방구, 교양오락
교 통 통 신	공공교통, 개인교통, 통신
기타소비지출	담배, 이·미용, 장신구, 교제비, 경조사비등

다(Maddala, 1983).

로짓모델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가계소비지출관련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가계소득, 가구원수, 가구주 나이,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직업, 주거상태, 도시화정도, 주부취업여부등이 포함되었다. 가계소득과 가구원수가 가계소비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전 연구들에서도 검증되었듯이(Horton과 Hafstrom, 1985; 양세정, 1993) 정비례의 관계라기보다는 U자형일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가계소비유형에 속하는 가능성 역시 U자형일 것으로 판단되어 각 변수에 대하여 자연대수 로그형태를 취하였다. 나머지 변수들은 각 변수에 있어서의 하위집단간 비교를 위하여 모두 가변수형태로 사용하였다. 이들 변수의 차이에 따라 개별 가구가 특정 소비지출유형에 속할 확률을 산출함으로써 각 유형의 결정요인들이 규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각 가계소비지출유형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결정요인을 판별하기 위해 사용된 로짓모델은 다음과 같다. 로짓분석에서 종속변수는 the log of odd ratio로 전환되어 사용한다.

$$\ln(p/1-p) = a_1 + a_2\ln(Y) + a_3\ln(SIZE) + a_4AGE1 + a_5AGE2 + a_6AGE3 + a_7ED1 + a_8ED2 + a_9ED3 + a_{10}OCCU + a_{11}HOUSE1 + a_{12}HOUSE2 + a_{13}URBAN1 + a_{14}URBAN2 + a_{15}EWIFE$$

여기서 p=i유형의 소속확률; Y=가계소득; SIZE=가구원수; AGE1～AGE3=가구주 나이의 더미변수(30대, 40대, 50대이상 vs. 20대); ED1, ED2, ED3=가구주 교육수준의 더미변수(고졸이하, 대졸미만, 대졸이상 vs. 중졸이하); OCCU=가구주 직업의 더미변수 (노무자 vs. 봉급자); HOUSE1, HOUSE2=주거상태의 더미변수(전세, 월세 vs. 自家); URBAN1, URBAN2=도시화정도의 더미변수(서울, 직할시 vs. 기타도시); EWIFE=주부취업여부의 더미변수(취업 vs. 비취업)으로 나타낸다.

회귀계수는 최우추정법에 의해 추정되어지는데 이때 계수 자체는 각각의 독립변인이 the log of the odd ratio에 영향을 주는 한계효과를 의미한다. 이들 각 유형에 속할 확률에 대한 각 변수의 한계효과의 분석은 독립변수가 연속변수인 경우에 한하며 더미변수를 다수 포함하는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생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계수인 경우 그 변수와 집단에 속할 확률은 정의 관계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Maddala, 1983).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00만 6천원이었다. 평균 가구원수는 4.19명이었고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39.69세였다. 가구주가 봉급자인 가구가 39.6%였으며 2년제이상 대학교육을 받은 가구주의 가구가 25.0%이었다. 조사대상가구 중 自家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54.6%였으며 조사대상가구의 31.9%가 주부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중 전체조사대상의 평균치인 마지막 행 참조).

2. 가계소비지출유형별 가구특성

군집분석의 결과 다섯 개의 서로 다른 가계소비지출유형이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분류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도는 32.1%(R^2-값)였다. 각 유형에 있어서 비목별 소비지출구성비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유형은 각기 다른 소비지출행태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소비지출의 특징

〈표 2〉 가계소비지출유형별 소비지출구성비

(단위 : %)

소비유형 / 지출비목	I	II	III	IV	V	전 체
가 구 수	546	312	264	88	39	1,249
(%)	(43.7)	(25.0)	(21.1)	(7.1)	(3.1)	(100.0)
총소비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 료 품	33.9	41.8	30.7	31.6	20.4	34.6
주 거	2.9	3.0	2.8	20.9	3.1	4.1
광열 · 수도	4.9	5.8	4.5	4.7	3.0	5.0
가구집기 · 가사용품	5.8	5.3	5.8	4.8	3.6	5.6
피복 및 신발	8.3	8.4	8.4	6.4	5.3	8.1
보 건 의 료	4.3	7.9	4.6	4.2	3.5	5.3
교육교양오락	18.8	5.3	8.3	8.2	8.1	12.2
교 통 통 신	5.9	6.3	6.4	5.6	39.4	7.1
기타소비지출	15.2	16.2	28.5	13.6	13.6	18.1

〈표 3〉 각 유형별 지출구성비의 여타유형 지출구성비 평균에 대한 비율

소비유형 / 지출비목	I	II	III	IV	V
식 료 품	0.96[a]	1.30	0.86	0.90	0.58
주 거	0.56	0.66	0.62	7.18	0.74
광열 · 수도	0.98	1.24	0.89	0.94	0.60
가구집기 · 가사용품	1.09	0.94	1.06	0.86	0.64
피복 및 신발	1.06	1.05	1.04	0.78	0.65
보 건 의 료	0.72	1.76	0.86	0.80	0.66
교육교양오락	2.70	0.37	0.63	0.66	0.66
교 통 통 신	0.73	0.85	0.87	0.77	6.47
기타소비지출	0.75	0.86	1.86	0.74	0.75

주) a 이 경우 (제1유형의 식료품비의 구성비)/(제2, 3, 4, 5유형의 식료품비의 평균구성비)에 의해 계산됨.

〈표 4〉 가계소비지출유형별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구특성 \ 소비유형	I	II	III	IV	V	전 체
가계소득(천원)	1,047	805	1,167	835	1,315	1,006
가구원수(명)	4.51	3.87	3.98	3.97	4.31	4.19
가구주 나이(평균)	41.76	36.48	39.46	39.44	38.79	39.69
가구주 나이(%) : 29세이하	6.4	17.3	13.2	13.6	7.7	11.1
30~39세	32.6	57.7	42.8	46.6	46.2	42.4
40~49세	44.1	12.5	23.5	20.5	38.5	30.0
50세이상	16.9	12.5	20.5	19.3	7.7	16.4
도시화 정도(%) : 서 울	49.1	52.2	48.9	39.8	35.9	48.8
직 할 시	16.8	19.9	23.1	20.4	28.2	19.5
중소도시	34.1	27.9	28.0	39.8	35.9	31.7
가구주 직업(%) : 봉급자	39.7	30.8	49.6	28.4	66.7	39.6
노무자	60.3	69.2	50.4	71.6	33.3	60.4
가구주 : 중졸이하	34.9	33.6	24.7	34.1	18.0	31.9
교육수준(%) 고졸이하	40.7	48.1	40.9	50.0	41.0	43.2
전문대졸	6.6	7.7	11.7	5.7	7.7	7.9
대졸이상	17.8	10.6	22.7	10.2	33.3	17.0
주거상태(%) : 自 家	63.5	37.8	58.7	34.1	82.1	54.6
전 세	26.6	45.5	32.2	2.3	12.8	30.3
월 세	9.9	16.7	9.1	63.6	5.1	15.1
주부취업여부(%) : 비취업	65.0	74.4	68.9	56.8	79.5	68.1
취 업	35.0	25.6	31.1	43.2	20.5	31.9

을 반영하여 5개의 소비지출유형을 각기 1) 교육교양오락비-우위적 유형, 2) 생필품비-우위적 유형, 3) 기타소비지출비-우위적 유형, 4) 주거비-우위적 유형, 5) 교통통신비-우위적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각 소비지출유형의 특징을 부각하기 위하여 각 유형별 지출구성비의 여타유형 지출구성비 평균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여 〈표 3〉에 제시하였으며, 〈표 4〉는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나타낸다.

전체연구대상의 절반에 근접하는 43.7%에 해당하는 546 가구가 교육교양오락비-우위적 유형에 포함되었다. 이 유형의 가구들은 평균적으로 총소비지출액의 18.8%를 교육 및 교양오락비에 소비하고 있는데 이는 여타 가구의 교육교양오락비 평균치인 6.96%의 2.7배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다. 반면 주거 및 보건의료, 교통통신 및 기타 소비지출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출구성비를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이 가계소비지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교육비지출의 과다로 인하여 가계소비지출구조가 왜곡된 형태를 지니는 가구가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가구의 경우 전체가구의 3.8%가 교육비 지배적 유형(Fan과 Stafford, 1994)이었던 것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이 유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가계소득은 전체평균과 비슷한 반면 다른 유형에 비해 가구원수가 가장 많고, 自家보유비율 또한 63.5%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40대 가구주가 44.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가정생활주기상 자녀의 교육비 지출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많은 312가구(25%)가 속하고 있는 유형은 생필품비-우위적 유형이었다. 총소비지출액의

41.8%를 식료품비에 이용하는데 이는 여타 가구의 식료품비 평균치의 1.30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더불어 광열·수도(1.24배) 및 보건의료비(1.76배)와 같은 생활필수재적 비목에 있어서도 타집단에 비해 높은 구성비를 나타내었다. 반면 교통통신, 기타소비지출 등과 같은 선택적 지출비목에는 비교적 낮은 지출구성비를 보였으며 특히 교육교양오락비는 전 소비지출의 5.3%에 불과하여 모든 유형중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 유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볼 때 월평균가계소득이 805,000원으로 모든 유형 중 가장 낮아서 소득과 식료품비 지출구성비와의 반비례관계에 대한 통상적인 경제이론을 실증적으로 뒤받침하고 있으며, 전세에 살고 있는 비율도 타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45.5%를 나타내었다. 경제적 자립기반이 불충분한 2, 30대 가구가 이들 집단의 75.0%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이 유형의 가구들은 낮은 소득을 가지고 주로 생활필수품 위주의 소비지출을 하는 경제적 복지수준이 높지 않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기타소비지출비-우위적 유형으로 전체의 21.1%인 264 가구가 이에 해당하였다. 여타 유형 가구들의 평균치의 1.86배에 달하는 28.5%가 기타소비지출에 주어지고 있으며 가구집기·가사용품과 피복 및 신발비등 가계취향을 반영하는 선택재의 지출에 비교적 높은 소비지출 비중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생활의 기본재인 식료품, 광열·수도, 보건의료비에 대한 소비지출구성비는 전체평균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특히 주거비의 지출구성비는 2.8%로 다섯 유형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 유형의 월평균가계소득은 1,167,000원으로 전체평균보다 다소 높았으며, 가구주의 연령은 전체평균과 비슷한 반면 가구주의 34.4% 다수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 다른 유형의 가구들보다 비교적 높은 학력수준을 나타내었다.

전체 가구의 대다수라 할 수 있는 89.8%가 위에서 서술한 3가지 소비유형에 속하였으며, 소수이지만 뚜렷한 특성을 지니는 두 가지 소비유형으로 주거비-우위적 유형과 교통통신비-우위적 유형이 분류되었다. 주거비-우위적 유형은 전체가구의 7.1%를 차지하였다. 이들은 가계소비지출의 20.9%를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었는데 이는 기타 가구들의 주거비 지출구성비 평균치의 7.18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같이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기타 모든 지출비목의 구성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식료품비와 광열·수도 등의 생필품적 성향의 지출비목은 타집단과 유사하였으나, 나머지는 지출비목들에서는 타집단 지출구성비의 평균수치에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교통통신 같은 사치재의 지출비중이 적게 나타났다. 월세등을 포함하는 주거비 지출이 높다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소비유형은 월세가구(63.6%)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평균 가계소득은 835,000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훨씬 낮아 식료품비 지배유형과 함께 저소득계층으로 분류된다. 가구원수는 3.97로 적은 편이었으며 가구주 직업에 있어 노무자가구의 비율이 71.6%로 전체 유형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이 집단의 주부취업률은 가장 높아 이 집단 주부의 43.2%가 취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조사대상가구 중 3.1%가 다섯번째 소비유형인 교통통신비-우위적 유형에 속했다. 이들은 가계소비지출의 39.4%를 교통통신비에 사용하였는데 이는 여타 가구들의 평균치의 6.47배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다. 이 부분에의 소비집중으로 말미암아 기타 다른 비목의 지출구성비는 전 지출비목에서 전체 평균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통통신비의 증가는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자가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 활동의 능률성을 추구하는 가구들이 속해 있는 유형이라 볼 수 있다. 이 유형의 가계소득은 1,315,000원으로 全소비지출유형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가구주 직업에 있어 다른 유형과 비교해 볼 때 봉급자가구가 현저히 높은 비중(66.7%)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가구주의 교육수준도 가장 높아 4년제 대졸이상이 33.3%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장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이 집단에서 自家보유율(82.1%)도 가장 높았으며 주부의 취업률은 20.5%에 불과하여 다섯개의 소비유형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3. 가구특성별 가계소비지출유형의 분포

〈표 5〉는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가계소비지출유형에 대한 분포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표 4〉와 구별되어진다. 즉 30대가구의 경우 이들이 다섯 개의 소비지출유형에 어떤 식으로 분포되는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보는 각 특정집단의 소비행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먼저 가구주 나이별로 살펴보면 가구주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단계인 2, 30대인 경우 두번째 소비유형(생필품비-우위적 유형)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20대가구의 38.9%가 이 유형에 속하며, 30대가구도 이에 버금가는 높은 수치인 34.0%의 비율을 보였다. 자녀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40대 가구의 경우 이들 중 대략 ⅔에 해당되는 64.2%가 첫번째 소비유형(교육교양오락비-우위적 유형)에 속하였으며, 50대가구는 40대가구보다는 다소 낮은 44.9%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4, 50대가구의 교육비지출이 가계운영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늠하게 한다. 한편 20대와 50대가구들이 세번째 소비유형(기타소비지출비-우위적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25%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경조사비와 교제비등을 포함하는 이 비목의 특성상 사회활동과 자녀교육에 보다 높은 가치를 둘 것으로 기대되는 3, 40대는 이들 20대와 5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서울거주가구의 44.0%가 첫번째 소비지출유형(교육교양오락비-우위적 유형)이며, 생필품비-우위적 유형도 26.7%에 이름으로써 이들 두 유형이 서울거주가구의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 거주 가구가 첫번째 소비지출유형(교육교양오락비-우위적 유형)에 속하는 비율은 47.0%로 서울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할시거주 가구 역시 교육교양오락비-우위적 유형의 비중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표 5〉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가계소비지출유형의 분포구성비

가 구 특 성	I	II	III	IV	V
전 체 가 구	43.7	25.0	21.1	7.1	3.1
가구주 나이 : 29세이하	25.2	38.9	25.1	8.6	2.1
30~39세	33.6	34.0	21.3	7.7	3.4
40~49세	64.2	10.4	16.5	4.8	4.0
50세이상	44.9	19.0	26.4	8.3	1.5
도시화 정도 : 서 울	44.0	26.7	21.2	5.8	2.3
직할시	37.6	25.5	25.0	7.4	4.5
중소도시	47.0	22.0	18.7	8.8	3.5
가구주 직업 : 봉급자	43.8	19.4	26.5	5.1	5.3
노무자	43.7	28.6	17.6	8.4	1.7
가구주 교육수준 : 중졸이하	47.9	26.4	16.4	7.5	1.8
고졸이하	41.1	27.8	20.0	8.1	3.0
전문대졸	36.4	24.3	31.2	5.1	3.0
대졸이상	45.8	15.6	28.2	4.2	6.1
주 거 상 태 : 자 가	50.9	17.3	22.7	4.4	4.7
전 세	38.3	37.4	22.4	0.5	1.3
월 세	28.7	27.7	12.8	29.7	1.1
주부취업여부 : 비취업	41.8	27.3	21.4	5.9	3.6
취 업	47.9	20.0	20.6	9.5	2.0

상대적으로 기타소비지출비-우위적 유형(세번째 소비지출유형)의 비중이 25.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봉급자와 노무자가구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노무자가구는 가계소득이 낮은 집단임에 따라 생필품비-우위적유형인 두번째 소비지출유형에 속하는 가구가 28.6%에 달하며, 반면 원만한 사회적 관계가 요구되는 봉급자가구는 기타소비지출비-우위적 유형인 세번째 소비유형에 속하는 가구비율이 노무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26.5%를 나타내었다.

가구주 교육수준별 가계소비지출유형의 분포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구의 교육비지출형태는 가구주의 교육수준과는 무관함을 시사한다. 가구주가 중졸이하인 가구가 교육교양오락비-우위적 유형에 속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 47.9%를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수치는 평균치인 43.7%에 비해 4.2%나 높은 값이다. 가구주가 대졸이상인 경우 45.8%로 버금가게 높았다. 대졸이상의 가구주를 가진 가구의 경우 교통통신비-우위적 유형인 다섯번째 소비유형에 속하는 경우가 타집단의 2배를 상회하는 6.1%를 보였다.

주거상태가 다름에 따라 가계소비지출유형의 분포구성은 현저히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가구의 절반이상(50.9%)이 교육교양오락비-우위적 유형(소비유형 I)에 속하고 있으며, 전세가구는 내집마련을 향한 내핍생활이 예상됨에 따라 생필품비-우위적 유형에 대한 비중이 타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37.4%를 나타내었다. 매월 집세를 지출하는 월세가구는 이들 중 29.7%가 주거비-우위적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교육교양오락비-우위적 유형과 생필품비-우위적 유형에도 각기 20%대의 분포율을 보였다.

주부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주부가 취업을 하고 있는 가구중 47.9%가 첫번째 소비유형(교육교양오락비-우위적 유형)에 속함으로써 주부취업과 자녀교육간의 일련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비취업가구의 경우 생필품비-우위적 유형에 속하는 가구가 27.3%로 취업가구의 20.0%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4. 가계소비지출유형의 영향요인

군집분석에 의해 분류된 소비유형에 대한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짓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선행연구결과에서 가계소비지출규모에 대해 주요요인으로 검증된 바 있는 가계소득의 경우 가계소비지출유형분류라는 구조적 측면에 대해서도 주요한 관련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소비지출유형에 대해서는 가구원수, 가구주 나이, 주거상태등이 의미있는 관련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미국자료를 사용한 연구(Chung, 1991; Fan과 Stafford, 1994)에서 주요변수로 나타난 바 있는 가구주 교육수준이나 가구주 직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지출유형이 가구원의 취향이나 선호를 반영한다기보다는 가계소비지출의 필요(needs)에 의해 특징지워지기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교양오락비에 총소비지출의 18.8%를 소비하는 첫번째 소비유형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가계자료를 사용한 Fan과 Stafford(1994)의 결과와는 상반된 것으로 미국의 경우 경제적인 여유가 인적자본투자에 가치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계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높은 교육열이 가계소비지출행태에 반영되어 자녀교육비 지출이 소득비탄력적 성향을 나타냄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의 이 비목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가구원수가 많음에 따라 이 소비유형에 속할 확률이 커지고 있었는데 이는 자녀수가 많아짐에 따라 교육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가족생활주기를 반영하는 가구주의 나이에 따라서도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이 달라지고 있었는데 20대 가구주의 가구에 비해 자녀들의 교육비 지출이 정점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40대와 50대 가구주의 가구에서 이 소비유형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커지고 있었다. 또한 중소도시에 비해 대도시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이 소비유형에 속할 확률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대도시의 상대적으로 높은 자녀교육열

〈표 6〉 가계소비지출유형의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 회귀계수(*t*-값)

변 인 \ 소비유형	I	II	III	IV	V
ln (가계소득)	-0.341*	-0.938**	1.365**	-0.234	1.166*
	(1.998)	(4.725)	(6.294)	(0.739)	(2.434)
ln (가구원수)	1.533**	-0.451	-1.474**	-0.040	-0.456
	(6.141)	(1.642)	(5.221)	(0.086)	(0.706)
가구주 나이 : 30~39세	0.063	-0.020	-0.225	0.486	0.379
	(0.276)	(0.091)	(0.930)	(1.214)	(0.577)
40~49세	1.228**	-1.326**	-0.594*	-0.0004	0.146
	(5.004)	(4.855)	(2.149)	(0.001)	(0.208)
50세이상	0.554*	-0.751**	-0.126	0.675	-1.059
	(2.081)	(2.648)	(0.428)	(1.423)	(1.191)
도시화 정도 : 서 울	0.563**	-0.217	-0.523*	0.068	-0.456
	(3.080)	(1.051)	(2.492)	(0.199)	(1.046)
직할시	0.385*	-0.023	-0.223	-0.446	-0.595
	(2.287)	(0.122)	(1.192)	(1.356)	(1.420)
가구주 직업 : 노무자	-0.114	0.192	0.041	0.090	-0.641
	(0.651)	(0.959)	(0.201)	(0.258)	(1.364)
가구주 : 고졸이하	-0.045	-0.121	0.022	0.485	-0.199
교육수준	(0.279)	(0.655)	(0.105)	(1.571)	(0.376)
전문대졸	-0.159	-0.145	0.393	-0.079	-0.663
	(0.558)	(0.451)	(1.263)	(0.134)	(0.823)
대졸이상	-0.004	-0.302	0.104	0.048	-0.351
	(0.016)	(0.955)	(0.349)	(0.089)	(0.531)
주거상태 : 전 세	-0.188	0.542**	0.142	-2.293**	-1.117*
	(1.260)	(3.310)	(0.810)	(3.088)	(2.180)
월 세	-0.709**	-0.092	-0.463	2.126**	-1.000
	(3.480)	(0.419)	(1.757)	(7.285)	(1.292)
주부취업여부 : 취 업	0.132	-0.270	0.062	0.317	-0.537
	(0.959)	(1.645)	(0.378)	(1.220)	(1.285)
상 수 항	1.620	12.716**	-17.644**	-0.341	-17.642**
	(0.712)	(4.809)	(6.081)	(0.081)	(2.710)

*$P \leq 0.05$, **$P \leq 0.01$에서 통계적으로 有意

주) 본 회귀분석에서 가변수를 사용한 경우 각 변수에 대한 비교집단은 아래와 같음.
가구주 나이 (29세이하); 도시화정도 (중소도시); 가구주 직업 (봉급자);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이하); 주거상태 (自家), 주부취업여부 (비취업).

과 다양한 교육 및 교양오락시설의 수용정도가 다른 것도 그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월세가구인 경우 이 소비유형에 속할 확률은 自家가구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는 이들 가구의 과중한 고정지출부분인 주거비 지출과 함께 상대적으로 교육교양오락비 지출은 적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가구주 직업, 가구주 교육수준 및 주부의 취업여부는 이 소비유형에 속한 확률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소비지출의 41.8%를 식료품비에 지출하는 두번째 소비유형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이 소비유형에 속할 가능성은 커지고 있었는데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엥겔계수가 높다는 일반적인 상식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른 변인들이 같다고 가정했을때 가구주의 나이가 많은 4, 50대 가구가 20대 가구에 비해 이 소비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의 또 다른 특징은 전세가구가 현저히 많다는 것이다. 이는 전세가구들이 장래 주택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택재 부분에 대한 지출을 상당부분 자제하는 내핍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가구원수, 주거지역, 가구주 직업, 교육정도, 주부취업여부는 두번째 소비유형에 속할 확률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소비지출에 28.5%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세번째 소비유형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이 소비유형에 속할 확률은 급격히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미용, 장신구, 교제비 등을 포함하는 기타소비지출비목의 선택재적인 성향을 반영하였다. 반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가구원수의 증가는 이 소비유형에 속할 확률을 감소시키고 있었다.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경우가 이 소비유형에 속할 확률은 20대가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40대 가구의 경우 자녀양육에 따른 지출로 인해 생활필수재가 아닌 기타 소비지출에 지출할 여력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울지역가구가 중소도시가구에 비해 세번째 소비유형에 속할 가능성은 적었는데 이는 서울지역가구의 경우 교양교양오락비에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가구주 직업이나 교육정도, 주거상태, 주부취업여부등은 이 소비지출유형의 결정과는 무관한 변수로 나타났다.

총소비지출의 20.9%를 주거비에 지출하는 네번째의 소비유형을 살펴보면, 전적으로 가구의 주거상태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일정하다고 했을때 월세가구가 이 소비유형에 속할 확률이 自家가구보다 높은 반면, 전세가구는 自家가구보다 낮다. 이는 주거비의 주구성요소가 월세와 주택수리비라는 사실로 설명된다. 월세가구인 경우는 매달 일정금액의 월세를 지불하여야 하는 반면, 전세가구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주택사용료가 없으며 타인 소유의 주택이므로 주택유지비의 지출 또한 自家가구보다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이 소비유형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네번째 소비유형은 저소득층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가구주가 노무자이고 이들의 교육수준도 낮은 편이었으나, 주거상태가 동일하다고 가정한 회귀분석에서는 이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의해 이 유형에 속하는 확률에 미치는 유의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총소비지출의 39.4%를 교통통신비에 지출하는 다섯번째 소비유형은 가계소득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득정도가 높을수록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소득 등의 변인을 일정하게 조정한 후 自家가구가 이 소비유형에 속할 확률이 전세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유형의 경우 연구대상 가구의 수가 39가구에 불과하여 로짓분석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3]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가구의 비목별 지출구성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계소비지출의 유형을 분류하여 각 유형

3) 39가구를 포함하는 이 유형에 대해 로짓분석을 적용하는 경우 더미변수 사용할 때 한 cell에 2가구가 포함되는 경우가 2번, 3가구가 포함되는 경우가 1번 있었다. 부족한 조사대상가구 수에서 비롯되는 연구결과의 타당성은 통계기법상 각 cell당 평균값을 비교하는 회귀분석에 비해 cell에 포함될 확률을 비교하는 로짓분석의 경우 그 심각성이 줄어들 수 있으나, 이 역시 연구결과의 한계성을 다소나마 안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단지 참조자료로 사용하기로 한다.

별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또한 각각의 소비지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가계소비지출유형은 교육교양오락비-우위적 유형, 생필품비-우위적 유형, 기타소비지출비-우위적 유형, 주거비-우위적 유형, 교통통신비-우위적 유형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로짓분석을 통한 이들 가계소비지출유형과의 관련변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계소득, 가구원수, 가구주 나이, 주거상태등과의 관련성이 높았다.

가계소비지출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육교양오락비-우위적 유형에는 총소비지출액의 18.8%를 교육 및 교양오락비에 지출하고 있었으며 전체 가구의 43.7%가 이에 속하였다.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주 나이가 40대인 경우, 대도시거주하는 경우에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많은 25.0%의 가구가 속해 있는 유형은 생필품비-우위적 유형으로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및 보건의료비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의 소비지출을 하고 있는 집단이었다. 가계소득이 적고 전세가구인 경우, 그리고 가구주가 젊은 가구가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이 보다 높았다. 기타소비지출비-우위적 유형에는 기타소비지출에 가장 높은 비중의 지출구성비를 보이는 집단으로 21.1%의 가구가 속해 있었으며 가계소득이 높고,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주거비-우위적 유형은 전체 가구의 7.1%가 속해 있고 월세가구가 대거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통통신비-우위적 유형은 3.1%의 가구로 구성되었고 전 소비유형을 통해 평균가계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가계소비지출구조는 그 유형별로 매우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각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밀접한 가계소비지출의 필요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변수로 가계소비지출유형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직업등은 무관한 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가구주 나이와 주거상태등 소비지출필요정도의 제약으로 작용하는 변인들이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가구들의 탄력적이지 못한 가계소비지출양태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때 가정의 생활주기와 관련된 합리적인 가계운영방안에 대한 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이 요망된다. 또한 주거상태가 가계소비지출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주거문제가 가정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실감하게 되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나아가 주거상태부분이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중점적이고도 포괄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둘째, 교육교양오락비-우위적 유형은 전체 가구의 43.7%를 차지하고 있어 소비지출의 유형별 수치로 볼 때 우리나라 가구는 크게 교육교양오락비-우위적 유형과 여타 가구로 분류될 수 있었다. 교육교양오락비-우위적 유형의 가구는 중간소득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기타 가구에 비해 2.5배 높은 비중을 교육 및 교양오락비에 지출하고 있었으며 반면 기타비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위축된 소비실태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는 가계소득등 경제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높은 사교육비지출을 반영한다. 따라서 교육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가계복지증진의 측면에서라도 가계의 교육비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의 개발이 시급하며, 한편 가계관리적 측면에서는 자녀교육비마련에 대한 장기적인 재무계획이 요망된다.

세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가계소비지출유형을 평균소득수준에 따라 분류해 볼 때 사회의 저소득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유형은 생필품비-우위적 유형과 주거비-우위적 유형의 가구들이었다. 이들 유형은 전체 가구의 32.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우리사회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구들이 생활의 기본재를 중심으로 소비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주거비-우위적 유형의 경우 주거비지출이 20.9%에 이름으로써 타유형의 가구들과는 다른 가계

소비지출양태를 보여주었다. 이는 가계복지정책의 중심이 주택정책에서 비롯되어져야 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네째, 전체 가구의 약 90%를 차지하는 교육교양오락비-우위적 유형과 생필품비-우위적 유형, 그리고 기타소비지출비-우위적 유형을 구성하는 가구에 있어 이들의 소득수준과 소비유형이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피복·신발류나 가사용품·가사집기의 지출비목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이들 비목에 있어 중하위소득계층의 상위소득계층에 대한 소비편승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전 비목에 걸쳐 균형있는 소비패턴을 유도하는 방향으로의 소비자교육이 요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의 결론으로 요약되어진다. 즉 가계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운영의 시발점은 주택정책과 교육정책이라는 점이다. 또한 가계관리자는 이러한 예측가능한 미래의 가계소비지출에 대해 보다 계획적인 가계운영이 생애주기를 통한 합리적인 가계관리를 꾀할 수 있을 것임을 숙지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인식하면서 가계소비지출유형 분류와 관련한 미래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보다 세분화된 지출비목의 사용이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전반적인 유형이 분류되어졌다고 보더라도 기타소비지출부분의 세분화를 통하여 교제비와 경조비등 이 비목에 속한 다른 성향의 지출비목의 구성비를 통한 세심한 분류작업이 요망되며, 더불어 외식비지출에 대한 세분 또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보여지듯 우리나라의 소비유형은 주로 가계의 소비필요에 의해 형성되어진다고 볼 때 이와 관련된 가구구성원의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지 못하였음은 연구 원자료상의 한계로 남는다.

【참 고 문 헌】

1) 김기옥, 이승신(1990). 소비자의 주관적 경기전망과 소비지출패턴. 소비자학연구, 1(2), 15-31.

2) 문숙재, 정순희(1995). 소비지출 패턴 차이에 관한 연구-서울지역 편모가족과 양부모가족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6(2), 53-65.

3) 손상희(1993). 가계소비패턴의 구조. 소비자학연구, 4(2), 51-72.

4) 양세정(1993). 주부의 취업이 가정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4(2), 17-28.

5) 이성민(1992). 도시가계의 선택적 소비지출행태에 관한 연구. 소비생활연구, 9, 53-60.

6) 정영숙(1992). 가계의 소비지출패턴 -대구·경북지역 가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3(2), 1-14.

7) 최은숙(1990). 우리나라 소비지출 유형의 변화-소비지출함수의 측정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1), 127-157.

8) 통계청(1991), 도시가계연보 1990(기초자료).

9) Bryant (1990).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 Cha, S. S. (1991). Consumption patterns of poor household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11) Chung, Y. S.(1991). Expenditure patterns of older and younger consum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2) Fan, J. & Stafford, K.(1994). Determinants of consumer expenditure patterns. Consumer Interests Annual, 40, 239-246.

13) Horton, S.E. & Hafstrom, J.L.(1985). Income elasticities for selected consumption categories: Comparison of single female-headed and two-parent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 292-303.

14) Maddala, G. S.(1983). Limited 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5) Uusitalo, L.(1980). Identification of consumption style segments on the basis of household budget allocation. In J.C. Olson(Ed.),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Proceedings of the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7, 451-459.